<합격수기>

15학번 김○지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중등임용고시 전남 합격자 김현지입니다.
저는 3수 째에 합격했고, 합격한 해와 그 이전을 나누어 저의 공부 방법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연락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재학시절

저는 수학적 머리(?)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내세울 것은 저의 끈기와 노력이었고, 그다지 높지 않은 성적으로 입학하였으나 성실히 공부하여 학과 성적은 높게 유지하였습니다. 그 성실함은 저에게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3학년은 해당 학기의 과목을 잘 소화하기 위한 전공 스터디를 했고 교육학과 수교론은 학과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으로 충분했습니다. 3학년때, 선배들의 교육학 스터디에 같이 참석하여 스터디를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처음 임용 시험을 보러 갈 때 저는 임용고시라는 시험이 어떤 경향으로 출제되는지 기출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결과는 전공 과락이었습니다. 선배들과 꾸준히 공부한 탓인지 교육학은 19점이라는 고득점을 한 것을 보고 그 이후 전공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2. 재수

4학년 막학기를 마치자마자 저는 노량진행을 선택했습니다. 고시원, 독서실, 스터디 등을 구하고 적응하는데 약 한 달이 걸렸고, 다른 임고생들처럼 상반기에는 전공 기본서 연습문제를 푸는 스터디, 수교론 백지쓰기 스터디를 했고 이전에 선배들과 했던 교육학 스터디를 병행했습니다. 학원 강의 수강을 따로 하지는 않았고 상반기는 스터디와 개인공부만 했습니다. 이때, 기출문제를 보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출제된 기출문제를 항상 함께 봤습니다. 7월부터 교육학은 이전 기출과 사설모의고사 문제를 일주일에 2개씩 꾸준히 풀고, 미처 암기하지 못한 내용 등을 추가로 공부했습니다. 전공 기본서를 1번씩 정독, 완독하니 9월이었고, 그때부터 바로 노량진 모의고사 현장강의(전공+수교론)를 신청하여 시험의 긴장감을 유지했습니다. 매일이 스터디, 개인공부, 학원강의로 치열했지만 결과는 전공점수에서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3. 삼수(합격)

재수 불합격의 쓴맛을 보고 더 이상 노량진에서 버틸 자신이 없어 지방에 내려와 자취, 학원강사 일을 하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멘탈회복+지방에서 몇 없는 수학임고생과의 스터디를 구하는 데 2월을 다 보냈습니다. 딱 한 분이 가까이 계셔서 그분과 전공 기본서 내용+연습문제, 수교론 내용 백지쓰기(그 단원에서 내가 아는 거 요약해서 다 쓰기) 스터디를 주 1회 만나서 3~4시간 정도 했고, 스터디에서 뭘 한다기보다는 일주일 동안 서로 온 힘을 다해 공부해 온 것을 서로 진도체크하고 궁금한 점을 함께 고민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하는 스터디를 했고 서로 지원하는 지역이 달랐기 때문에 더 도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여 많은 스터디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저 또한 질문스터디(서로 질문 올리고 피드백하는 밴드스터디), 기출문제풀이스터디(하루에 전공10문제씩 풀이 올리기), 전화스터디(정해진 단원의 교육학, 수교론 내용 아는거 전부 말로 설명하고 서로 피드백) 등 다양한 스터디를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오프라인 스터디보다 시간, 장소 제한 없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오히려 좋아~). 하반기에는 같이 공부하던 선생님이 노량진으로 이사가셔서 모든 스터디를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지금껏

공부하면서 기본서와 기출만 많이 파면 좋을 줄 알았는데 여러 실패를 맛본 후로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역대 사설 모의고사 등을 구하여 많이 풀어보고 스터디원들의 풀이도 많이 봤습니다. 기본서 없이는 공부할 수 없으나 임용을 위해서는 기본서 연습문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책상에 앉아 스터디를 했고, 학원일을 하며 나의 자존감과 경제력, 2차 시험에서 떨지 않을 용기를 얻었으며, 새벽 1~2시까지 공부를 하는 9개월의 결과로 첫 1차 합격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4. 2차시험

한 번도 1차 합격을 해본 적이 없어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중1~고1 지도서의 내용을 공부하고 면접 책을 정독했습니다. 그냥 공부하려니 지루해서 이것도 스터디를 하면서 학습진도가 늘어지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1차 합격발표날이 되니 모든 지도서 1회독, 면접책 2회독이 된 상태였고, 1차 합격발표 후에는 실제로 실연해 본 영상을 올리고 서로 피드백을 받는 스터디를 여러 개 진행했습니다(온라인+오프라인 병행). 학과 선배님들께도 많은 도움을 받아 지금 이 공간을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5. 후배님들께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① 100명의 합격자가 있으면 100개의 합격수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정말 공감했습니다. 저의 합격수기도 정답은 아니니 본인에게 맞는 점만 참고하세요.
② 재학시절을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합격자들은 모두 치열한 재학시절을 보냈습니다.
③ 초수는 합격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이 생각이 우리를 합격자 고갈상태로 만든 것 같습니다. 수강한 과목의 기출문제는 그 학기에 모두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도 임용고시와 그리 멀지 않습니다.
④ 선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고민이 있다면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실겁니다.
⑤ 비루한 저의 합격수기이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 스터디 방법, 필요한 자료 등 도움드릴 준비가 되어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세요☺